훅하고 들어오는 것들

(스가랴 2:1~13)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훅하고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훅하고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읽은 본문 중 5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6~9절까지는 5절 말씀의 전반부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고, 다시 10~13절까지는 5절 하반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과 가축을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찾아올 때에는 준비를 많이 했든 준비를 하지 않았든 언제나 훅하고 들어옵니다. 훅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 눈에 반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짜증나고 불쾌했지만 자꾸 생각나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이런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도 준비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음을 눈치 챘을 때에는 이미 사랑하게 된 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훅하고 들어오는 것은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벌레가 기어들어오듯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들어올 수도 있고 번개가 치듯이 충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다보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이 들어올 때에 인생은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옥이 되어갑니다. 세상이란 나의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일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삶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석 달 열흘을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석 달 열흘이나마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담을 때에 반드시 걱정과 슬픔의 재료가 되고 이윽고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한 문제로 인해 씨름을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입시 문제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문제로써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들어옴이 진짜 문제입니다. 훅하고 들어오든 슬금슬금 들어오든 스멀스멀 들어오든 강력하게 압박하며 들어오든 충격적으로 들어오든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여덟 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아모스 7장에서도 측량에 대한 환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심판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의 측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써의 측량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측량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납니다. 21장 1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정비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던 시점은 BC.520년에 학개 선지자에 의해 성전 재건이 재개된 지 2달 후였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준비조건은 바로 성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언에서 하나님의 불 성곽 안에서 살아갈 자들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생활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서울 종로에서 살던 사람이 1년간 부산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자 주민등록이 있는 서울 종로구로 투표용지가 날아옵니다. 선민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있다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민인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더라도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거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모습이 사뭇 특이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예루살렘 거민이 된 자의 삶은 성곽이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곽 또한 재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성곽이 없는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헐크라는 만화주인공이 있습니다. 헐크가 분노하면 몸이 커지면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집니다. 이처럼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성곽은 견디지 못하리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역사상 예루살렘은 그러한 확장을 이루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성전을 생활화 할 선민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선민은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성곽을 쌓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것들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어진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임할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타민족을 정복해서 전리품이 산처럼 넘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활화하는 선민으로부터 하늘의 기운과 축복이 샘솟아 나면서 성곽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져서 물이 흐르게 되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오아시스가 형성됩니다. 선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샘이 됩니다. 그들로

부터 샘솟는 하늘의 기운과 사랑이 성곽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날 일입니다.

선민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일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대생이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항상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남자들이 호감을 보여도 바늘구멍만한 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여대생의 마음에서는 남자친구가 불 성곽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주시면 나는 하늘의 뜻이 솟아오르는 샘이 됩니다. 밖에 있는 것을 긁어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멋진 남자친구를 둔 여대생의 마음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마음에 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길 바랍니다. 돈이라는 남자를 사귀면 기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남자친구로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이제 돈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잊게 됩니다.
돈 문제는 사실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실 중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 성전의 생활화였고 우리에게는 성전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불 성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더는 돈이라는 남자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람이나 방식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불 성곽에 대한 말씀 뒤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갖게 되자 내가 당면한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고 뻗어나가면서 확장되길 바라십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특징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곧 상번제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대생이 멋진 남자친구를 항상 떠올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선민들에게는 성전 생활화였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불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샘솟는 샘물이 됩니다. 성곽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확장되어갈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의 확장은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석 달 열흘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불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몸이 아플 때에 119에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시선과 뜻이 닿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시던 사이에 나 혼자 있다가 아프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던 중에 나의 아픔도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면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건강의 문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은 불 성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기에 반드시 낫는다고 확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 번 중에 여덟 번은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비단 건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문제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제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남자친구를 가진 여대생처럼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며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선을 주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에 그 뜻을 막는 성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의 불 성곽이 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훅하고 들어오든 슬금슬금 들어오든 강압적으로 들어오든 충격적으로 들어오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하나님만 계시는 깨끗한 상태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 이미 세상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십자가를 붙잡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

나님을 불 성곽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되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퍼져나갈 것이고 성곽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죽게 하시므로 단 하나의 사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